

책속인물에게 보내는 제6회
한글 손편지

친구가 되고 싶은 비읍이에게

안녕, 비읍이?

안녕, 비읍아?

나는 너와 동갑내기 친구인 김래원이라고 해~^^

너의 엄마께서 삐삐를 좋아하시는데,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선생님을 모르고 제셨다고?

우리엄마도 말괄량이 삐삐를 나에게 알려주셨지만, 삐삐를 만든 사람이 린드그렌 선생님이신지는 모르시더라고요~

아!! 나도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왜 너의 이름이 비읍인지 몹시 궁금했어.

하지만, 너의 아버지가 학교에 입학하시기 전까지

그, 나, 드, 르, 모 까지 밖에 몰랐는데, 선생님한테 'ㅂ'을 배우고, 비읍을 알게 되니까 시옷도 알게되고, 우리말 자음과 모음이 줄줄이 사탕처럼 아빠 머릿속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했지? 갓 태어난 너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비읍을 알게 된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, 아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아이라서 비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았지

뭐야~!! 나도 우리아빠가 내 이름을 짓기 위해 출생신고도 늦게 해버릴 만큼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고생하셨어. 내 이름은 한자로 올 래(來), 담 원(垣) 또는 별 원(垣)래원인데 미래에 모든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, 미래에 밝은 별이 되라는 뜻으로 래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.

